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Filial piety and familism of the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진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학과
조교수 최 정 혜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Jeong-hye Choi

〈목 차〉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was focused on the filial piety, familism of the undergraduates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75 undergraduates living in the Gyeongnam a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undergraduate's filial piety and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was high but familism was low.

Second, the more the undergraduate's filial piety and familism were high, the more the undergraduate's consciousness for supporting their parents was high. Also filial piety was shown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undergraduate to support their parents.

Third, the attitude of undergraduate's towards supporting their parents has been changed and Undergraduates felt that there is a lack of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1. 서론

오늘날 물질문명이 정신문명의 우위에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인 면은 놀라운 성장을 가져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으나, 문화적인면 특히 가치와 관련된 면에서는 역사의 단절을 심화시켜왔다. 다시말해서 전통문화가 부정되어 가치관 혼란이 거듭되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중에서도 가족문화는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자신의 정체성과 가장 밀착된 개념으로 볼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족문화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심은 가족을 이루는 핵심으로서의 부모-자녀관계를 들 수 있고 이 관계는 우리의 전통적 '효' 사상과 연결된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무조건 전통을 배제하고 서구적인 것을 뒤쫓던 결과, 효에 대한 가치관도 혼란에 빠졌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노부모 부양문제이다. 즉 가치관의 혼돈으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노부모 부양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부모와 자녀 모두 이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갈등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이희자 외, 1996).

전통사회에서 관습적이고 규범적 가치인 '효'에 바탕을 둔 가족 부양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왔으나, 그동안 산업화로 야기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보다 심각한 노부모 부양문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성규탁, 1991, 1995). 이에 따라 최근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덕목으로서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성규탁, 1995; 정옥분 외, 1996), 그 관심도가 높다. 따라서 효 가치관은 부모 부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기본 이념이 되므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효 의식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또한 현대 가족의 변화를 보면 외형적인 가족구조가 혈연중심의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부모와의 관계보다는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더욱 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내면적인 가족의 변화 역시 개인보다 가족을 위주하는 집합주의적 가치관은 쇠퇴하고 개인을 위한 가족이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부모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인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에 익숙한 반면 자녀들은 개인 중심주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어 세대간에 가족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노후 부양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송애 외, 1991).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함께 변화하고 있지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인 전통규범으로서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 즉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지배하는 윤리 중의 하나인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분적으로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우리생활에서 가치결정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가치 아래 삶을 형성해 가고 있어 부분적인 변화는 보이지만 계속해서 주요 규범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관심도 우리의 가족문화를 정립하는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급속한 사회변화를 겪으면서 자라 기성세대들과 가치관이 다르며, 그러면서 또한 미래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할 주인공이므로 이들의 가치관과 부모 부양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문화 규범의 수용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가족문화 형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세대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대상자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정도는 어떠한가?

2.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가?
3. 대학생의 효 의식 및 가족주의 가치관 정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은 어떠한가?
4.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5.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6. 대학생의 일반적인 부모부양의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효 의식

효(孝)는 덕(德)의 근원이고 인(仁)의 근본으로, 인과 덕의 구체적인 표현이 효도이다(최재석, 1982). 그래서 효사상은 유교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효를 백행지본(百行之本)으로 존중해 왔으며, 효자는 부모를 잘 받드는 자식으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체계를 한마디로 표명한 것이 '효'이다(정옥분 외, 1996). 이러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동아시아인들의 부모-자녀관계와 부모부양 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서, 한국, 중국 및 일본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유승국, 1983; 지교현, 1989; Chow, 1991; Palmore & Maeda, 1985). 즉 효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부양에 영향을 주는 이념으로서 우리의 의식과 예의 범절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성규탁, 1994).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로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은혜때문이고, 둘째는 부모가 나를 길러주신 은혜 때문이다. 효를 행한다는 것은 사친(事親)함을 의미하며(맹자; 예기; 성규탁, 1994 재인용) 율곡은 효행을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봉양하는 것으로 보았다(율곡전서 27; 재인용, 성규탁, 1994). 이처럼 부모 봉양에 대한 윤리적인 효는 개인적 이득을 초월한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최근의 입장은 전통적인 효와 현대적인 효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효행 방법의 차이라고 보았으며(고영복, 1983), 또한 효는 노부모를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남을 수 있고, 다만 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그 실현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재간, 1989). 다시말해서 우리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 이념을 새로운 사회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규탁(1994)은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를 행동지향적 효(희생, 책임성, 보은), 정서지향적 효(가족조화, 애정/사랑, 존경), 가족지향적 효(가족의 영속과 체면유지) 등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효 의식과 관련된 변수 연구로는 성규탁의 연구(1995)에서 한국인의 효행 의지가 연령에 따라 조금씩 약해지는 추세를 가진다고 보고했으며, 정옥분 등(1996)은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전통적 효는 세대, 성별, 교육수준, 직업, 출생순위, 가족구조 등에 상관없이 인식되고 있지만, 세대 및 성별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명자(1996)등은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에게 전통적인 효도관과 현대적인 효도관이 동시에 존재하며, 세대별 및 성별에 따른 효도관의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등은 효 의식에 관련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효 의식은 부모 부양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현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모 부양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효 이념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2. 가족주의 가치관

가족주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이 집단의 이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는 가치지향이다. 가족주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족주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은 최재석(1965)에 의해서 비로소 고찰되었는데, 그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서 가족주의를 정의하고 그 중심사상을 집으로 보았으며, 김태길(1982)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주도권을 잡는 생활로서 가족의 번영,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았다. 이효재(1985)는 가족의 인간관계를 가족 외적인 일 반사회로 확대시켜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및 가치체계로 보았으며, Burgess & Locke(1945), Heller(1970)등은 가족주의를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합주의의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우선성을 부여하는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 원리로 접근하고자 하며, 가족주의 가치관이란 다른 연구들(김송애·조병은, 1991; 옥선화, 1989; 한은주, 김태현, 1994)에서 성격이 규명된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의 총체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가족주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룬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 가족주의 가치관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지만 전통성과 근대성의 공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송애·조병은, 1991).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경제적 상태, 나이, 성,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결혼년수, 종교, 동거형태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김태현, 1994), 농촌가족을 중심으로 본 옥선화의 연구(1990)에서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연구 대상에 따른 영향 변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근대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것에서 근대적으로 즉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에서 개인 중심적 개인주의로 변화해 감을 말해주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 부양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3. 부모 부양의식

부양의식이란 개인이 부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서 사회적 또는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부양의식의 변화는 세대간의 부양에 대한 기대육구와 이용가능한 자원을 예측하게 하므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서도 의식 및 태도의 변화가 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이가옥 외, 1990). 즉 부양의식의 변화는 부모의 부양에 대한 기대, 자녀세대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양수준,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미래부양 기대육구 등에 대한 지표로 제공해 준다.

노부모 부양이 주로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양의식이 노부모의 생활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부양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과거 노인 부양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나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와서 노부모와의 동거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으며, 장남 이외에 차남과의 동거 또는 딸에 의한 동거율이 늘어나고, 장남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경제기획원, 1992; 재인용 김태현, 1994), 전반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송애 외, 1991; 서병숙, 1988; 이가옥 외, 1990; 한국인구보건원, 1985; Les Whitbeck at al., 1994).

부모 부양의식 관련 변수 연구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의 몸시중 부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거나(우미경, 1988) 저학력소지 부양자일수록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임종권, 1987) 교육수준에 따른 부양의식의 차이를 보고하였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1985)에 의하면, 노인은 장남이 부양책임이 있다고 인식한 반면 동거자녀의 장남 부양 책임의식은 노인보다 낮게 나타나 세대간에 부양의식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노부모 부양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병숙, 1986; 송효석, 1989; 임인혜, 1987; 허훈, 1988), 고

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인 부양의식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를 보여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노인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임인혜, 1987).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부양의식 연구에서 고학년이 될수록 부양 책임의식이 높게 나타나(허훈, 1988) 연령 변수에 따른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과 출생순위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일수록,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부양의식이 높다고 보고되어(서병숙, 1986; 임인혜, 1987; Gary R. Lee et al., 1993; Walker et al., 1989) 젊은이의 부양의식은 연령, 성별, 출생순위 등이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효 의식은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주는 기본 가치 이념으로서,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은 가족중심적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중첩되는 영역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효나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 부양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또한 세대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젊은 세대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등을 규명해 보고 아울러 관련 변수로서 연령, 성별, 가족형태, 형제 수, 출생순위, 종교, 출신지역 등을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진주시에 있는 C 대학교와 G 대학교의 재학생이다. 자료분석에 이용된 675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대학 3학년인 22세가 가장 많고(48.3%), 다음으로 4학년 및 복학생인 23세 이상이 27.1%, 2학년인 21세가 20.6%로 나타났다. 성별구성을 보면 여학생(55.7%)이 남학생(44.3%)보다 조금 많으며, 가족형태는 대부분 핵가족 형태(80.1%)이다. 형제 수는 4명이상이 가장 많고(31.9%), 다음으로 2명(26.5%), 3명(25.3%)순으로 나타났다. 출

생순위는 첫째가 가장 많고(35.9%), 다음이 막내(33.9%)로 나타났다. 종교는 과반수 이상(56.6%)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인은 기독교(23.1%), 불교(18.5%)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출신지역은 도시 66.3%, 농촌 33.6%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효 의식 척도,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 부모 부양의식 척도 그리고 부모 부양의식과 관련된 개방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별 내용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효 의식 척도는 성규탁(1994)의 효의 측정 문항 중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5개 항목을 선택하여 부모에 대한 애정, 보답, 존경, 책임감, 희생 등에 대하여 가치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없다'에 1점부터 '많이 있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점수범위는 5-25점), 점수가 높을수록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alpha = .74$ 였다.

가족주의 가치관 척도는 옥선화(1989)와 한은주·김태현(1994)의 척도를 이용하여 가족우선성 4문항, 부계가문의 영속화 4문항, 부모공경의식 4문항,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4문항 등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반대'에 1점부터 '아주 찬성'에 5점까지 주어(점수범위는 16-80점),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alpha = .79$ 였다.

부모 부양 척도는 김명자, 안선영(1996)과 최정혜(1994)의 척도 및 선행연구를 근거로 경제적 부양 4문항, 정서적 부양 4문항, 신체적 부양 4문항 등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아주 반대'에 1점부터 '아주 찬성'에 5점까지 주어(점수범위는 12-60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 α = .85였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방법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조사 실시에 앞서, C, G대학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7년 2월 24일에서 3월 25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대상자 표집은 학년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유의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C대학교의 경우 대부분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하였고 나머지는 몇몇 교수에게 조사를 의뢰하였다. G대학의 경우 역시 학년을 고려하여 몇몇 교수에게 질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응답을 받도록 의뢰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800부였으며, 이 중 회수된 것은 685부였는데, 부실기재된 10부를 제외한 총 67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성을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점수,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와 중다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정도에 대한 전반적 경향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을 총체적인 수준과 하위 영역별 수준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의 효 의식은 5점 리커트척도에서 평균 4.44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개인주의적 사회풍토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의식은 계속 강하게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효행 의지가 조금씩 약해진다는 연구(성규탁,

199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이 도시화가 덜 진행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연구여서 그러한 차이를 보였을 수도 있고 또는 의식을 조사한 연구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답한 경향성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효의식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현재 대학생들도 효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적 시각으로 재검정된 효 모델이 현대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옥분, 1996)를 일부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5점 리커트척도에서 전체가 평균 2.65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이 조금 높고(3.13), 다음으로 부모 공경의식(2.91), 가족 우선성(2.35), 부계가문의 영속화(2.19)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부계가문의 영속화 개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낮은 수준으로(M=2.65) 선행연구(한은주, 김태현, 1994: 시부모 3.36, 며느리 2.91)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낮게 나타나 세대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변화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회경제적 유대의식(3.13)은 선행연구(한은주, 김태현, 1994)의 며느리 세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 결과(3.62)와 일치하는 경향이면서 점수는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족주의 가치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부계가문의 영속화(2.19) 역시 선행연구에서 며느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부계가문의 영속화(2.41)영역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비교를 통하여 볼 때 본 연구 결과가 서울과 지방이라는 지역차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가치관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연령차이에 대한 요인이 크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가지게 한다.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은 5점 리커트척도에서 전체가 4.09로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특히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이 부모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담당할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송효석, 1989; 유호신, 1985; 이희자·김영미, 1996; 임종권 외, 1985; 허훈, 1988)에서 부모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여전히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양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부모 노후에 대한 적극적 부양의식을 엿볼 수 있다.

가치관은 연령이 높은 4학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볼 수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아들 중심의 가족문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확대가족 형태의 대학생이 핵가족 형태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출신이 시지역 출신보다 더 높게 나타나 도시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감소 경향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출신지역 변수는 도시 출신 대학생이 농촌출신 대학생

<표 1>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의 전반적 경향

(N=675)

| 변 수 | 항 목 | M | SD | 범 위 |
|----------|----------------|------|-----|-------------|
| 효 의 식 | 전 체 | 4.44 | .49 | 2.40 - 5.00 |
| 가족주의 가치관 | 전 체 | 2.65 | .45 | 1.44 - 4.56 |
| | 가족우선성 | 2.35 | .59 | 1.00 - 4.75 |
| | 부계가문의 영속화 | 2.19 | .73 | 1.00 - 4.75 |
| | 부모공경의식 | 2.91 | .63 | 1.00 - 5.00 |
| |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 3.13 | .55 | 1.25 - 4.75 |
| 부모 부양의식 | 전 체 | 4.09 | .51 | 1.58 - 5.00 |
| | 경제적 부양의식 | 4.23 | .57 | 1.50 - 5.00 |
| | 정서적 부양의식 | 4.00 | .59 | 1.00 - 5.00 |
| | 신체적 부양의식 | 4.06 | .58 | 2.00 - 5.00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대학생의 연령, 형제수, 출생 순위, 종교, 성별, 가족형태, 출신지역 등에 따른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을 일원변량분석과 t-test를 통해 살펴보고, 일원변량 분석의 추후 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하였다(표 2 참조).

대학생의 효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대학생의 효 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 없이,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p<.001), 성별(p<.001), 가족형태(p<.05), 출신지역(p<.01)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가족주의

보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낮게 나타나 도시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의 감소 경향(옥선화, 1990)을 지지해 준다. 또한 연령, 성별 변수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연구보고들(김송애·조병은, 1991; 한은주·김태현, 1994)과 일치하여 의미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연령(p<.001), 종교(p<.05), 성별(p<.01), 출신지역(p<.05)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높았으며, 종교를 가진 대학생이 종교가 없는 대학생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높고,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농촌지역 출신이 시지역 출신 대학생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성별 변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이희자·김영미, 1996), 이는 우리나라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N=675)

| 독립변수 | 집단 (빈도) | 효 의 식 | | 가족주의 가치관 | | 부모부양의식 | |
|-------|------------|-------|---------|----------|---------|----------|---------|
| | | 평균 | F | 평균(D) | F | 평균(D) | F |
| 연 령 | 20세이하(27) | 22.74 | | 41.15(A) | | 47.48(A) | |
| | 21세(139) | 22.22 | | 43.01(B) | *** | 49.34(A) | *** |
| | 22세(326) | 22.04 | 1.47 | 40.42(A) | 20.92 | 48.40(A) | 5.52 |
| | 23세이상(183) | 22.44 | | 45.39(C) | | 50.52(B) | |
| 형 제 수 | 1명이하(110) | 22.14 | | 40.87 | | 49.20 | |
| | 2명(179) | 22.34 | | 42.72 | | 48.80 | |
| | 3명(171) | 22.29 | .47 | 42.74 | 1.89 | 48.96 | .48 |
| | 4명이상(215) | 22.07 | | 42.40 | | 49.50 | |
| 출생순위 | 첫째(242) | 22.22 | | 41.61 | | 48.79 | |
| | 둘째이상(204) | 22.28 | .21 | 42.90 | 1.98 | 49.23 | .59 |
| | 막내(229) | 22.13 | | 42.55 | | 49.39 | |
| 종 교 | 없음(382) | 22.07 | | 42.26 | | 48.73 | * |
| | 있음(293) | 22.40 | t=-1.74 | 42.40 | t=-.25 | 49.65 | t=-1.94 |
| 성 별 | 남자(299) | 22.21 | | 45.11 | *** | 49.92 | ** |
| | 여자(376) | 22.20 | t= .05 | 40.10 | t=9.55 | 48.50 | t=2.96 |
| 가족형태 | 핵가족(541) | 22.20 | | 42.01 | * | 49.04 | |
| | 확대가족(134) | 22.27 | t=-.30 | 43.55 | t=-2.09 | 49.49 | t=-.77 |
| 출신지역 | 농촌지역(227) | 22.40 | | 43.55 | ** | 49.96 | * |
| | 시지역(448) | 22.12 | t=1.43 | 41.69 | t=3.13 | 48.71 | t=2.55 |

* p < .05, ** p < .01, *** p < .001, D:Duncan test 범주별 검증결과임.

라의 아들선호사상과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아들이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들보다 딸의 부모 부양책임이 더 높은 서구의 연구결과(Gary R. Lee et al., 1993; Rossi and Rossi, 1990; Walker et al., 1989)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일 면으로 생각된다.

3. 대학생의 효 의식 및 가족주의 가치관 정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대학생의 효 의식 및 가족주의 가치관 정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효의식은 전체 5문항에 4점(약간 있다)까지 응답한 집단은 낮은 집단으로, 그 이상의 점수에 응답한 집단을 높은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전체 문항에 3

점까지 응답한 집단을 낮은 집단으로, 그 이상의 점수에 응답한 집단을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t-test를 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효 의식이 높은 대학생 집단이 효 의식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효 의식 정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 정도에 따라 부모 부양의식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본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양의무감이 높다는 선행 연구(김송애, 조병은, 1991)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부모 부양의식에 있어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표 3〉 대학생의 효 의식 및 가족주의 가치관 정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

(N=675)

| 구 분 | 변 수 | M | SD | t |
|----------|------------|-------|------|--------|
| 효 의식 | 낮은 집단(146) | 44.58 | 5.83 | *** |
| | 높은 집단(529) | 50.38 | 5.57 | -10.72 |
| 가족주의 가치관 | 낮은 집단(556) | 48.27 | 5.98 | *** |
| | 높은 집단(119) | 53.16 | 5.04 | -9.28 |

*** p < .001

4.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7%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며, 이 두 변수를 합한 설명력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효 의식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오늘날 효 개념을 재정립하고 효 의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들(김명자, 안선영, 1996; 박재간, 1989; 성규탁, 1994; 정옥분, 1996)을 지지해 주며, 아울러 현대사회에서도 부모 부양이념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효 의식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효에 대한 가치 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부모를 부양하는데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족주의 가치관도 부모 부양의식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은 상관이 낮게 나타나 상호간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약함을 알 수 있다.

6. 대학생의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개방질문 실태

대학생의 일반적인 부모 부양의식은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아들, 딸 모두에게 있다는 의식이 대부분이며(82.9%), 특히 장남의 책임이라는 의식은 5.5%에 불과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달라진 가치관을 보여준다. 한편 이결과는 〈연구문제 2〉의 성별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표 4〉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 Step | 독립변수 | Mult R | Rsqr | F(Eqn) | Sig F | β |
|------|----------|--------|------|--------|---------|-----|
| 1 | 효 의식 | .52 | .27 | 249.22 | .000*** | .46 |
| 2 | 가족주의 가치관 | .59 | .34 | 176.17 | .000*** | .27 |

*** p < .001

5.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 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효 의식과 부모 부양의식 간의 상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부양의식, 그리고 효

볼 때 연구문제에서는 부양의식을 점수화해서 비교한 자료이고, 개방질문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를 본 것이 아니라 부양책임을 전체로 파악한 결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 노인의 공경정도는 '조금 공경한다'가 가장 많으며(75.2%), 미래에 부모와의 동거지향이 과반수 이상(68.4%)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부모와의 동거지

〈표 5〉 대학생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

| 구 분 | 효 의 식 | 가족주의 가치관 | 부모 부양의식 |
|----------|---------|----------|---------|
| 효 의식 | 1.0000 | .1889** | .5198** |
| 가족주의 가치관 | .1889** | 1.0000 | .3648** |
| 부모 부양의식 | .5198** | .3648 | 1.0000 |

** p < .001

〈표 6-1〉 대학생의 일반적인 부모 부양의식

(N=675)

| 구 분 | 항 목 | 빈 도 | 백분위 |
|----------------|------------------|-------|-------|
| 노부모 부양책임 | 장남 | 37 | 5.5% |
| | 아들들 | 63 | 9.3% |
| | 아들·딸 모두 | 559 | 82.9% |
| | 부모자신 | 13 | 1.9% |
| | 국가 | 3 | 0.4% |
| 현재 노인 공경의 정도 | 공경 안함 | 105 | 15.6% |
| | 조금 공경함 | 508 | 75.2% |
| | 많이 공경함 | 62 | 9.2% |
| 미래에 부모와의 동거 여부 | 원한다 | 462 | 68.4% |
| | 원하지 않는다 | 213 | 31.6% |
| 부모와의 동거 이유 | 세대간 단절을 막기위해 | 29 | 6.3% |
| | 효도하기 위해서 | 58 | 12.6% |
| |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 87 | 18.8% |
| | 은혜보답 | 67 | 14.5% |
| |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다 | 187 | 40.5% |
| | 모실사람이 없어서 | 10 | 2.2% |
| | 장남이므로 | 24 | 5.1% |
| | (계) | (462) | |
| 부모와의 비동거 이유 | 서로 편리하므로(불편하기때문) | 113 | 53.0% |
| | 갈등을 줄이기 위해 | 31 | 14.6% |
| | 직장때문 | 8 | 3.8% |
| | 장남이 아니기 때문 | 11 | 5.2% |
| | 부모가 원하지 않기 때문 | 31 | 14.6% |
| | 여건이 되지 않아서 | 10 | 4.6% |
| | 무응답 | 9 | 4.2% |
| (계) | (213) | | |

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래에 부모와의 동거 이유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다'가 가장 많고 (40.5%), 다음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18.8%),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와 '효도하기 위해서' 등

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부모와의 동거이유는 책임의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활에서 얻는 도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래에 부모와의 비동거 이유를 보면, 첫째가 서로 불편하지 않고 생활에

〈표 6-2〉 대학생의 일반적인 효 의식

(N=675)

| 구 분 | 항 목 | 빈 도 | 백분위 |
|--------------|-----------------------------|-----|-------|
| 현재 효 의식 정도 | 별로 없다 | 74 | 11.0% |
| | 조금 남아있다 | 509 | 75.4% |
| | 많이 남아있다 | 92 | 13.6% |
| 효의 의미 | 부모마음을 편안케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 | 267 | 39.6% |
| | 부모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 65 | 9.6% |
| |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 76 | 11.3% |
| |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 177 | 26.2% |
| |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 29 | 4.4% |
| | 성공으로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것 | 31 | 4.6% |
| |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 5 | 0.7% |
| | 무응답 | 25 | 3.6% |
| 효도하는 이유 | 천륜이며 규범이다 | 114 | 16.9% |
| |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다 | 146 | 21.6% |
| | 남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 353 | 52.3% |
| | 사랑하니까 | 35 | 5.2% |
| | 무응답 | 27 | 4.0% |
| 효 의식이 무너진 원인 | 무절제한 서구문물의 유입 | 110 | 16.3% |
| | 잘못된 교육(입시위주, 인성교육 부재) | 34 | 5.0% |
| | 잘못된 가정교육(부모의 과잉보호, 부분별한 사랑) | 70 | 10.4% |
| | 공경심 부족 | 7 | 1.0% |
| | 급속한 사회발전(핵가족화, 산업화) | 174 | 25.8% |
| | 사회풍토(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 218 | 32.3% |
| | 자녀들의 고학력으로 부모를 무시 | 2 | 0.3% |
| | 무너지지 않았다 | 30 | 4.4% |
| | 무응답 | 30 | 4.4% |
| 효 의식이 감소된 시기 | 최근, 1990년대 초 | 68 | 10.1% |
| | 1980년대 | 184 | 27.3% |
| | 1970년대 | 113 | 16.7% |
| | 1960년대 | 76 | 11.3% |
| | 1950년대 | 43 | 6.4% |
| | 핵가족화 이후(개인주의, 이기주의 팽창) | 49 | 7.3% |
| | 근대화되면서(개화기) | 39 | 5.8% |
| | 잘모르겠다 | 63 | 9.3% |
| | 감소되지 않았다 | 7 | 1.0% |
| | 무응답 | 33 | 4.9% |

편리하기 위해서이고(53.0%), 다음으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와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등이 각각 같은 비율로(14.6%)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효 의식은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현재 효 의식의 정도는 ‘조금 남아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나(72.4%), 현재 효 의식이 조금은 남아있다고 보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효의 의미는 ‘부모님

〈표 6-3〉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바라는 점

| | | (N=675) | |
|--------------------------------|---------------------|---------|-------|
| 구 분 | 항 목 | 빈 도 | 백분위 |
|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점 | 더 많은 대화 | 127 | 18.8% |
| | 좀더 효도했으면 | 12 | 1.8% |
| | 부모와 좀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 91 | 13.5% |
| | 자식세대를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 91 | 13.5% |
| | 성인대우를 해 주셨으면 | 90 | 13.3% |
| | 부모님 자신의 삶을 사셨으면 | 13 | 1.9% |
| | 의견충돌이 없었으면 | 9 | 1.3% |
| | 기타(경제적 집착, 지나친 기대) | 16 | 2.4% |
| | 없다 | 190 | 28.1% |
| | 무응답 | 36 | 5.3% |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에 가장 높게 반응했으며(39.6%), 다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26.2%),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11.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52.3%), 다음으로는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다'(21.6%)와 '천륜'(16.9%)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효도하는 이유는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효 의식이 무너진 원인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중심의 사회풍토' 때문으로 지적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32.3%), 다음으로는 '핵가족'(25.8%), '무절제한 서구문물의 유입'(16.3%), '잘못된 가정교육'(10.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효 의식이 감소된 시기로는 '1980년대'(27.3%), '1970년대'(16.7%), '1950년대'(11.3%), '1990년대'(10.1%) 순으로 나타나, 효 의식이 무너진 시기는 1980년대로 보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바라는 점은 '더 많은 대화'가 가장 많았으며(18.8%),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13.5%), '자식세대를 이해해주는 것'(13.5%), '성인대우를 해주는 것'(13.3%)등의 순으로 나타나,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향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7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및 부모 부양 의식 등을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효 의식이 아주 높게 나타나(M=4.44) 현재 대학생들도 효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낮은 수준으로(M=2.65)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들과 관련해 볼 때 세대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서(M=4.09)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효 의식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족주의 가치관은 연령(p<.001), 성별(p<.001), 가족형태(p<.05), 출신지역(p<.01)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셋째, 효 의식이 높은 집단일수록, 또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 부양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 대학생의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이 부모 부양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효과적인 부양정책 수립을 위해서 효 의식 및 가족

주의 가치관 정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에 가장 큰 영향 변수는 효 의식이며, 그 설명력은 27%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 부양이념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효 의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효 의식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섯째, 대학생의 효 의식과 부모 부양의식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 부양의식, 효 의식과 가족주의 가치관 순으로 나타나서 효에 대한 가치의식을 많이 가질수록 부모를 부양하는데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대학생의 부모 부양의식 관련 개방질문 상태에서 먼저 부모 부양책임은 아들.딸 모두의 책임이라는 가치관을 가져 변화된 가치관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에 부모와의 동거 지향이 의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직 대학생으로서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식때문인가 아닌가 생각되며, 동거의 주된 이유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나(40.5%) 대학생의 건전한 가치관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비동거의 주된 이유는 '서로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로 나타나(53.0%), 젊은이들의 변화된 가치 측면도 보여주었다.

한편 대학생이 생각하는 효의 의미는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해서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고, 효 의식이 무너진 원인은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중심의 사회풍토를 들었다. 효 의식이 감소된 시기는 '1980년대'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바라는 점은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활성화 문제를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경남지역의 대학생은 효 의식과 부모 부양의식이 높고 가족주의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에 따른 가족주의 가치관 감소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부양의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가지고 있어

이는 우리 전통사회에서 부모부양을 아들에게 책임지게 한 규범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변화에 따른 부모 부양의식이 많이 변화했지만 기본 규범이 의식 저변에 깔려 있어 우리문화의 독특함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인 부모 부양의식에서 부모 부양 책임을 보면 아들.딸 공동책임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장남 책임이나 아들 책임에서 의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효 의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사회풍토를 들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대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부모 부양의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부양정책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둘째, 대학생의 효 의식이 부모 부양의식의 가장 큰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므로 가족복지정책의 설정 과정에서 효 가치관의 현대적 모델 재정립이 과제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대학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양강좌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속에 '성인자녀-부모 대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참 고 문 헌】

- 1) 고영복, 전통사회의 효개념과 현실적 과제,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1983), 49-58.
- 2) 김명자, 안선영, 신세대부부와 중년기 부부의 효도관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6), (1996), 125.
- 3) 김송애, 조병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303-322.

- 4) 김태길,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문음사, 1982, 164-165.
- 5)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 6) 박재간, 전통적 효사상과 그 현대적 의의: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89-117.
- 7) 서병숙, 부모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1986), 50-68.
- 8) 성규탁,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2), (1991), 251-273.
- 9) 성규탁,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1994), 50-68.
- 10) 성규탁,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15(1), (1995), 1-14.
- 11) 송효석, 가족의 노인부양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옥선화,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9.
- 13) _____, 농촌가족에서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161-170.
- 14) 유승국,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치수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봄.
- 15) 유호신, 우리나라 주부의 노인부양의식 태도에 관한 연구, 인구보건논집 5(2), (1985).
- 16) 이가옥,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17) 이효재, 분단시대의 가족문제,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1985, 193.
- 18) 이희자, 김영미,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과 중년기 부모의 노후 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34(2), (1996), 117-128.
- 19)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 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 20) 임한순, 농촌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21) 정옥분 외 7명, 한국인의 효인식 및 실천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996), 387-403.
- 22) 지교현, 경료효친 사상의 역사적 전개와 그 현대적 의의: 전통윤리의 현대적 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213-278.
- 23)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민조사, 1965, 23-24.
- 24) 최정혜,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4(2), (1994), 25-36.
- 2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0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1985).
- 26) 한은주, 김태현,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한국노년학 14(1), (1994), 95-116.
- 27) 허 훈, 한국대학생들의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8, (1988), 89-106.
- 28) Chow, N. Does Filial Piety exist under Chinese Communism?,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Vol. 3, 1991, 207-225.
- 29) Elaine M. Brody, Sandra J. Litvin, Steven M. Albert, and Christine J. Hoffman, Marital status of daughters and patterns of parent car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9(2), 1994, s95-s103.
- 30) E. Burgess & H. Locke,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s*, NY: American Books Co., 1953.
- 31) Palmore, E. B., & Maeda, D., *The honorable elders revisited*,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85.
- 32) Gary R. Lee, Jeffrey W. Dwyer, and Raymond T. Coward,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and same-gender preferen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18 (1), 1993, s9-s16.
- 33) Heller P. L., Familism scale: A measure of family solidar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2, 1976, 73-80.
- 34) Les Whitbeck, Danny R. Hoyt, and Shirley M. Huck,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9(2), 1994, s85-s94.
- 35) Rossi, Alice S. and Peter H. Rossi,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0.
- 36) Walker, Alexis J., Clara C. Pratt, Hwa-Yong Shin, and Laura L. Jones, *Why daughters Care: Perspectives of mothers and daughters in a caregiving situation*, In Jay A. Mancini(ed.), *Aging parents and adult children*. MA: Lexington Books.